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7월 4일(주일) 제1351호

올해 여름은 VR 아웃리치!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네팔, 몽골, 일본, 탄자니아 등 8개국 선교현장 체험 7월 3일부터 국내 10개 캠퍼스 VR선교 체험관 운영

올해 여름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아웃리치다. VR기기를 활용해서 생생한 선교현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3일(토)부터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VR선교 체험관을 운영한다. 서빙고 홍보관, 양재 믿음홀, 부천 사

이닝글로리, 수원 자모실, 대전 사이닝글로리, 남양주 소망홀, 평택 사이닝글로리, 인천 온누리교회, 강동 사이닝글로리, 양지 1층 로비에 설치된다. 서빙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양재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결정한다.

VR선교 체험관에서는 네팔, 몽골, 일본,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멕시코, 러시아 등 8개국 선교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현지인들과 인사

를 나누고, 현지인 가정에도 방문한다. 현지 수도를 둘러보고, 선교사와 함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VR선교 체험관에는 VR기기, 회전 의자,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VR기기를 착용하고 원하는 국가의 동영상 시청하면 된다. 10~15분 정도 소요된다. 또한 2000선교본부에서 VR기기를 차세대 4,000대, 대학청년부 850대

제공했다. 스마트폰과 VR기기를 연결해서 동영상을 재생하면 가정에서도 선교지를 체험할 수 있다. 2000선교본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주 한 편씩 8개국 생생한 선교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방송할 예정이다.

박시형 목사(2000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VR선교 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2021 카운트다운 막 오른다!

청년세대의 영적 부흥과 예배, 선교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 ‘2021 카운트다운’이 7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오후 8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1 카운트다운은 ‘임재’, ‘거룩’, ‘부르심’, ‘선교’, ‘파송’을 주제로 5일 동안 이어진다. 5일 김요셉 목사(원전침례교회) ‘임재’, 6일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거룩’, 7일 박지범 선교사(LAMP지도목사) ‘부르심’, 8일 권성찬 선교사(GMF대표) ‘선교’, 9일 이재훈 담임목사 ‘파송’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문의: 02-570-7532

인천 온누리교회 입당 예배

7월 7일 오후 7시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인천 온누리교회가 드디어 입당 예배를 드린다. 7월 7일 오후 7시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인천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송도동 194-4)에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 입당 예배는 찬양, 기도, 영상, 특순, 성도의 교제, 성경봉독, 설교, 건축결과보고, 감사패증정, 감사의 말씀,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담당)와

김기영 장로(인천 온누리교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새로 건축한 인천 온누리교회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연면적 14,159.37㎡(4,283.21평)이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악기연습실, 자원봉사자실,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차세대 예배실, 여성사역실, 장애인예배실, 두란노서점, 2층에는 대예배실, 차세대 예배실, 교회 사무실, 3층에는 대예배실 2층, 중예배실, 차세대 예배실, 4층은 식당 및 주방, 소모임실, 옥상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관련 기사 4면).

인천 온누리교회는 국내 8번째 캠퍼스다. 2006년 4월 ‘선교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립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레내는 교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경남 목사는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천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하다”면서 “선교와 차세대 양육에 더욱 앞장서고, 인천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 홍하영 기자

故 김영길 장로 소천 2주기 추모예배

故 김영길 장로(전 한동대학교 총장) 소천 2주기 추모예배를 지난 6월 30일(수) 한동대학교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에서 드렸다. 한동대학교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추모예배 실황을 방송했다.

故 김영길 장로 2주기 추모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한동대학교 이사장), 김영애 권사(유가족 대표), 한동대학교 임직원 및 재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故 김영길 총장을 위한 추모의 글을 홈페이지(<http://bitly/ripygkim>)에 남길 수 있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기독교 세계관의 우월성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 우리 존재의 근원, 삼위일체, 창조주, 전지전능, 무소부재, 공의와 사랑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분이다.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힌두교나 뉴에이지, 정령신앙은 수많은 신의 존재를 말한다.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이고, 나도 신이다. 이들에게는 신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자를 인정하는 기독교 신학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철학과 과학은 존재의 근원(존재론)과 지식의 근원(인식론)을 찾아가는 학문으로 지식의 근원과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해 나간다. 무신론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우주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며,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 와서야 생성된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이 유한하고 세상이 발전하면서 지식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한다. 다신

론, 범신론을 추구하는 뉴에이지는 누구나 신이기 때문에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길이 진리라고 분명히 밝힌다. 진리가 없거나 다수의 진리가 있다는 다른 세계관은 설득력이 없다.

윤리 역시 마찬가지다. 무신론자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인간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며, 시대에 따라 선악의 기준도 변한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 역시 윤리의 기준을 어떤 신에 두느냐에 따라 상대적이라 주장한다. “선한 선생님이어”라고 부른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임을 우리에게 강력히 말하고 있다. 절대적인 도덕률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덕의 기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옮기려 하고, 세상의 모든 분쟁은 여기에서 생긴다.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이란 정체가 없고, 뇌세포 사이의 신호전달 때문에 생성된 한시적인 것으로 육체 기능이 정지하면 자취 없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고통과 악은 잘못된 사회 제도에 의한 것이며, 인간은 선하다고 한다. 선한 인간을 지키기 위해 악한 사회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는 고통

과 악은 실재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신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한다.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때 스스로 신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영은 육체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악과 고통이 인류에게 유입되었다고 말한다. 악과 고통의 원인이 타락한 개인의 심령에 있기에 구원은 사회개혁으로는 얻을 수 없고, 예수님 앞으로 회심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말한다.

법, 정치, 경제학에서는 정의에 대해 다룬다. 무신론자들은 절대적인 정의란 있을 수 없고, 많은 사람이 합의한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은 권력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실정법이며, 정치에서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이 정의가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그 원인이 되는 경제체제를 뒤엎음으로써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불의로 규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뉴에이지는 깨달음을 통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어떤 제도나 법을 정의 구현의 방해요소로 생각한다.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 앞에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세우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창의적으로 사용해서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경제

적으로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등장하셨으며, 그분의 언약이 실현될 것을 믿으며 산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메타네러티브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이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절대적 주권자를 믿는 신학,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철학과 과학,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윤리학,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악과 고통의 원인임을 설명하는 심리학과 사회학, ‘사랑 가득한 공의’라는 절대적 정의를 발하는 법, 정치, 경제학,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완성의 메타네러티브를 인정하는 역사학 등 모든 기준이 성경 속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수렴된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이 없고,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의존하는 다른 세계관들은 모순투성이의 일그러진 삶의 결과로 드러날 뿐이다.

묵상: 상대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기준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성경적 창조신앙 세워 나가는 첫걸음

방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설계’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과 방주에 관한 기록이 신화일까? 대홍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 기록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구약, 그것도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현대를 ‘패러다임의 전쟁 시대’라고 한다. 패러다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이다. 600여 년의 패러다임 전쟁 속에서 우리는 진화론적 사고에 근거한 관점으로 교육받아 왔다. 최근에는 유신진화론 같은 타협이론이 창조-타락-홍수심판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거짓으로 만드는 엄청난 위협을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패러다임에서 노아 홍수 사건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세심하게 설계된 노아의 방주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 창조신앙을 세워나가는 첫걸음이다.

나는 조선공학자로 1992년 세계 최초로 수행된 현대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노아 방주의 안전성 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성경은 노아 시대 대홍수와 방주에 관해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방주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된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폭 50규빗, 높이가 30규빗(135m x 22.5m x 13.5m)이다. 배수량 규모는 21,000톤 정도이고, 고폐르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발랐으며, 창은 위에서 1규빗 아래에 내고 3층 구조다. 홍수에 관한 설명도 너무나 구체적이다. 이것이 설화인가? 설화라면 성경에서 세 장에 걸쳐 이렇게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분명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방주에 대한 수치는 그보다 훨씬 의미 있다. 방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방주는 네모 상자형의 배다. 형태학적으로 뛰어난 복원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방주의 주요 치수 비율은 파도 속에서 방주의 거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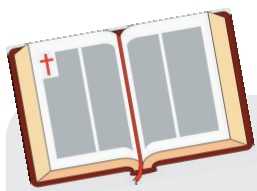
밀접한 관련이 있다. 1규빗 아래 창을 낸 것은 방주 속에 환기 시스템을 마련하신 것 같고, 역청은 방수시스템, 3층 구조는 많은 동물을 수용하면서도 무게중심을 아래쪽에 두어서 복원성을 좋게 하는 설계다.

노아 방주의 안전성 평가 연구는 세 가지 관점으로 실시되었다. 구조적 안전성, 복원 안전성, 파랑(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해파) 안전성이 그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방주 모형과 실제 모형을 제작해서 대형 수조에서 실험했다. 구조적 안전성은 파도에 따른 하중 조건이 바뀔 때 따라 방주가 구조적으로 부러질 수 있는 것이다. 복원성은 파도를 따라 방주가 좌우로 흔들릴 때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노아 방주와 같이 네모 상자형의 배는 복원성에서 매우 뛰어나다. 파랑 안전성은 내항 성능이다.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들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는지를 뜻한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한국해사기술연구소의 대형 실험시설에서 수행되었다. 실험된 결과는 과학적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13척의 다양한 모양의 방주와 상대평가 했다.

결론적으로 구조적 안전성에서 종강도 측면에서 가운데 아랫부분에 힘(응력)이 많이 집중되지만, 허용 기준치보다 낮아 방주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 안전성 측면에서도 사람이 많이 타는 여객선보다 훨씬 안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파고 30m 이상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상으로는 43m까지도 가능했다.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파고가 32m라고 했을 때, 방주는 현대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안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주는 스스로 환경에 안전하게 적응해가려는 특성이 있었다. 방주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설계는 최첨단 과학 중심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온다.



이경호 장로
(온누리교회
부천캠퍼스,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주의 일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박국 3:1~16

“우리는 언젠가 찾아오게 될 최후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면...

‘하박국’은 ‘끌어안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 뜻대로 역사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끌어안은 선지자입니다.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은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뜻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때로 재난을 허락하시고,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재난과 심판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하박국처럼 반항하듯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듯 질문했지만 그 태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받아들이려는 몸부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감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재난과 심판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시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구원을 바라보도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만이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구원을 소망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으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가지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2절).

하박국이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단지 무서움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만들지만, 경외함은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박국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무서워 도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성’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사야가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고 고백했습니다. ‘소식’이라는 단어가 ‘명성’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종으로 보내시고, 그 종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소식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사야도 “누가 곧이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소식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경외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이 얼마나 입이 부정한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계시 가운데 체험하고 그 발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면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구원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2절b).

하박국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한마디로 진노 가운데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악과 악인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사랑스럽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지 않고는 죄와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은 진노’라고 합니다. ‘맹렬히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은 가장 순수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불은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것만 남깁니다. 그것이 태우는 일입니다. 불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수하게 만드려고 우리를 태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는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자비를 ‘잔인한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심판과 구원, 진노와 자비하심이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과 진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용적인 뜻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십니까? 소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요동치는 이유,
인간의 불순종과 운동

하박국 시대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 백성들이 멸망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다시 새롭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하박국은 역사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늘 새로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교만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시절과 가나안 정복의 시절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만물까지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빛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썩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3b~6절).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을 심판할 때마다 자연 만물도 함께 무너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바위에서 터뜨리신 사건을 강으로 땅을 쪼갬으로 비유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영원할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이 질서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연 만물이 함께 요동칩니다.

여러분, 지구의 요동치는 모습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과 별개가 아닙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 땅이 영경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자연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은혜도 끝이 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종말을 예언하실 때 “지진이 도처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학자도, 지질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2천 년 전에 말씀하셨을까요?

(14면에 계속)

선교하는 교회, 다음세대 세우는 교회

인천 온누리교회 새 예배처소 입당예배



인천 온누리교회가 2018년 5월 착공예배를 드린 지 3년 만에 7월 7일(수) 오후 7시 입당예배를 드린다. 인천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는 교육과 산업발달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송도동 194-4)에 있다. 교회 근처에 초, 중, 고, 대학교가 있고, 대기업 계열사인 바이오 회사가 있다. 1만 여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2016년 2월 인천광역시 구월동 예배처소를 나와 송도로 예배처소를 옮겼다. 예배당 건축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예배처소 없이 송도 컨벤시아, 인천대학교 강당, 연세대학교 강당, 국제 캠퍼스 등지를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렸다. 매주 예배 장소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예배 장소가 정해지

면 주일 새벽부터 성도들이 나와 2~3시간 동안 예배를 준비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빌린 공간이기 때문에 사역에도 제한이 많았다. 안정적인 환경,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꿈이었다.

그 꿈이 드디어 이뤄졌다. 인천 온누리교회 예배당 건축 공사가 끝났다. 새로운 인천 온누리교회 예배처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지상 7,692㎡(2,327평), 지하 6,284㎡(1,900평), 대지면적 4,999㎡(1,512평), 연면적 13,975㎡(4,227평)다. 지하 1층과 2층에는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약기연습실, 자원봉사실이 있다. 지하주차장은 차량 150대를 수용할 수 있다. 또 교회 주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차공간

을 더 많이 확보했다. 성도들이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인전 온누리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성도들에 대한 교회의 애정이 묻어난다. 차세대 예배실, 여성사역실, 장애인 예배실 등이 있어서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커뮤니티실과 두란노서점(북카페)도 꽤 넓다. 2층과 3층은 예배를 위한 장소다. 2층 본당, 차세대 예배실, 목회행정실, 담당목사실, 교역자실, 3층 본당 2층, 중예배실, 차세대 예배실, 찬양연습실이 있다. 4층에는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식당, 소모임실, 옥상정원이 있다.

지금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예배
처소 입당을 앞두고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 특

히 매주 예배 장소를 구하고, 예배 준비를 담당
했던 처치빌더스사역팀의 감회가 남다르다.

송동섭 장로(인천 온누리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경일 집사(인천 온누리교회, 처치빌더스 팀장)는 “인천 온누리교회의 입당을 앞두고 창립할 때의 감격스러움이 다시 떠오른다”면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인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욱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역칼럼



서경남 목사
(온누리교회
인천캠퍼스 담당)

인천 은누리교회의 시작은 작은 기도모임이었다. 2005년 인천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퍼지기를 갈망하는 성도 23명이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 그 작은 기도의 씨앗이 점차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6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구월초한 건물 지하실에서 배를 드렸다.

창립한 지 3년 만에 등록 교인이 1천 3백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천 땅에 부흥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예배처소가 지하에 있다 보니 냄새가 나고, 성도가 늘어날수록 공간이 비좁았다. 예배드리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새로운 예배처소를 위해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2014년 3월 송도에 종교부지가 나왔다. 원

래 이슬람 학교가 들어설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이 취소되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입찰하게 되었다.

2016년 2월 구월동 지하 예배처소를 나와 송도 신도시로 예배처소를 옮겼다. 그때부터 정해진 예배처소 없이 매주 송도 곳곳을 돌아다녔다. 예배를 드릴 만한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다. 건물주가 나가려면 급하게 다시 예배 장소를 찾는 일도 있었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교도임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있다.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빼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288번 예배를 드렸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감사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기 때문이다. 예배 드리기가 힘들수록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모이기에 더욱 힘썼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주 3,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갔다.

그 작은 기도의 씨앗이...

특히 예배 준비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던 처치빌더스사역팀에게 감사하다. 처치빌더스는 그 이름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매주 주일 새벽 5시 30분에 모여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무대, 음향장비, 의자 등을 설치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오후 늦게까지 해체 작업을 했다. 송동섭 장로님은 처치빌더스사역팀과 더불어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다. 지난해까지 인천 온누리교회 대표 장로로 섬기면서 매주 예배 장소 섭의를 담당하셨다. 정해진 예배처소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큰 수고와 헌신을 해주셨다. 이 외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다. 한 명 한 명 나열할 수 없음이 죄송하다.

인천 온누리교회의 비전은 달라짐이 없다. 항상 '선교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다. 선교에 더욱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외국인 예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찾아온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섬기려고 한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들이 다시 고향을

로 돌아가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인천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마음 편히 머물다 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첫 예배 드리는 공간이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한다.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인천 온누리교회 새 예배당에는 층마다 차세대 예배실이 마련되어 있다. 차세대가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차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2005년 작은 기도모임에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이 인천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 완공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선교, 차세대 양육, 지역사회 복음화 등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사랑에 대한 팡세 ‘사랑을 살다’

“쉽게 포기하거나 빨리 판단하지 말라 인내가 사랑이다”



이상익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개리 채프먼(Gary Chapman)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사람은 저마다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가 분류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방식은 첫째,

인정하는 말(Talk), 둘째, 함께하는 시간(Time), 셋째, 선물(Present), 넷째, 봉사(Service), 다섯째, 스킨십(Touch)이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는 스킨십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이나 봉사를 받을 때, 또 누군가는 함께할 때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채프먼의 주장처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한 사랑의 언어를 익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만날 때 갈등이나 다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채프먼의 주장은 부부나 가족,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다. 자칫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랑을 강요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채프먼의 주장처럼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랑을 채워주는 방식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열쇠로 작용할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방식은 분명 갈등과 다툼을 제어하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사랑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환원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필요 이면에 상처가 자리해 있을 때가 많다. 상처가 ‘필요’라는 가면을 쓰고, ‘그것이 채워져야 사랑받는 것’이라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프먼이 제안한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 방식 역시 허상에 불과한 것 아닐까? 채워도 채울 수 없다는 허탈감과 채우고 있음에도 더 많이 채우지 못했다는 자괴감으로 심리적 고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해야 할까? 몇 편의 시를 통해 우리가 가진 사랑 이야기를 찬찬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는 서정홍 선생의 동시 ‘어른이 되면’이다.

“여보, 여기 앉아 보세요 / 발톱 깎아 드릴 테니 / 아니, 만날 어깨 아프다면서 /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 하루 일 마치고 돌아온 / 어머니, 아버지는 / 밤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 서로 발톱을 깎아 주고 / 서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 그 모습 / 가만히 보고 있으면 / 나도 빨리 장가들고 싶습니다 / 어른이 되면 /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서 /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생각한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사랑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갖게 된다. 결혼하면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 거라고 기대한다. 기대나 염원을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이 동시가 예뻐계만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살아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는 사랑을 조금 살아본 김나영의 ‘이사’이다.

“이 남자다 싫어서 / 나 이 남자 안에 갇혀 살 /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싫어서 / 당신 안에 아내 되어 살았는데 / 이십 년 전 나는 / 당신 밖에 없었는데 /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없네 / 옛 맹세는 먼 런닝구처럼 바래져 가고 / 사랑도 맹세도 뻔뻔물처럼 쭉 빠져나간 자리 / 25평도 아니야 / 32평도 아니야 / 사네 / 못 사네 / 내 마음의 공허가 / 하루에도 수십 번 / 이삿짐을 싣다 풀었다 하네.”

이 시에는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 차 있다. 부부가 되면 영원히 사랑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랑이 부질없이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를 경험한다. 화(火)를 경험한다. 화는 곧 불이다. 마음에 불이 나니 가슴 한편이 까맣게 타 버린다. 태워진 마음 한편에는 공허감이 깃든다. 이 공허한 느낌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싣다 풀었다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허감 역시 사랑하며 살아가니 경험하는 감정 아닐까? 사랑을 살아본 사람은 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부푼 기대와 염원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때로는 깊은 공허감, 때로는 분노에 찬 허탈감으로 살게 된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오래 살면 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세 번째 시는 이성기 시인의 ‘부부’다.

“또 당한 것이다 / 아침밥을 먹다가 벌떡 화를 내며 / 남편이 나갔다 / 전화도 없다 / 그런 데도 편하다 / 이제 나도 오십 /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돈다 / 돌아

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 물 좋고 싱싱한 낚지 두 코다리 사서 / 저녁 준비를 하는데 /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 슈크림빵 한 봉지 / 내 앞에 들어 민다 / 아무 생각 없이 하루종일 혼자 있으면 / 화도 웃음이 된다 / 아이구 저 화상, 하면서도”

현실에서 사랑을 살다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자포자기 심정을 갖기도 한다. 그만큼 사랑이 아팠고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닥을 친 느낌과 같은 포기의 마음은 사랑이 이미 끝났던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포기의 마음 역시 사랑의 또 다른 이야기 아닐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락없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장세정 시인의 동시 ‘사랑’에는 조금 긴 세월을 함께 산 부부이야기가 있다.

“밀린 월급 때문에 / 우리 아버지 / 술 한잔 한 날 / 어머니는 / ‘뭘 돈으로 마셨노?’ / 핀잔을 줍니다 /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 양말 벗기고 / 바지 벗기고 / ‘원수다 원수’ 하면서 / 꼴물 타 주고 / 눈곱 떼 주고 / 아버지 발 주무르다 / 앉아서 조는 / 우리 어머니 /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높고 낮음이 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 절망감 때문에 사랑을 접자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사랑하자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원수 같은 배우자를 한 번 더 사랑하자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 박영희 시인의 ‘접기로 한다’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 섭섭하기도 하고 패심하기도 하지만 / 접기로 한다 /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 다 쓴 편지도 /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 하찮은 종이 한 장 일지라도 /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 종이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 살다 보면 / 이슬비도 장대비

도 한순간 /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 반만 접기로 한다 / 반에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동지에 들지 않던가.”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깨달음마저 갖게 되는 것 아닐까. 경지에 이른 듯 세상의 이치와 사랑을 잇대게 된다. 도대체 얼마 동안 사랑해야 경지에 이르는지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갖게 되는 날이 온다니 또 한번 희망을 생각한다. 이성진 선생의 시 ‘아내와 나 사이’는 조금 먹먹하게 우리 가슴을 친다.

“아내는 76이고 / 나는 80입니다 /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투 사이입니다 /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 아내는 냉장고를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 그러나 /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 서로 모르는 사이가 /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 그것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이 외에도 무수한 사랑에 대한 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기대와 염원, 열정과 뜨거움만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한다. 사랑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려면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긴 세월을 다른 말로 ‘인내’나 ‘참음성’이라고 혹은 ‘맺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시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사랑에 대해 정의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신 6:5; 10:12; 11:1; 30:16; 수 23:11; 엡 2:4; 히 6:10; 요일 4:16). 성경의 사랑은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가 집약되어 있다(고후 3:5; 5:14; 갈 2:20; 엡 5:2).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는 하나님과 다툼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정의했다(요일 4:8). 그러므로 사랑의 핵심을 참고 견디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롬 2:4; 3:25; 고전 13:4; 벨후 3:9; 히12:2; 엡 4:2; 약 5:10).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렘 15:15; 벨후 3:9; 3:15; 딤후 1:16).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긴 세월을 떠올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벨후 3:8-9). 인내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기도하고, 용기를 내라!

“직장 상사 중에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쑥에서 벗어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들이 그분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욕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같이 욕하고 싶은 걸 동료들도 아는데, 저도 같이 욕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멘토님!”

고시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은 것처럼 기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은 ‘찰나’라고 할 만큼 짧다. 그 기업 특유의 문화와 상명하복과 위계질서로 이어지는 조직문화에 순응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가혹한 현실은 더 당황스러울 것이다. 지금은 덜하지만 회식 때 폭탄주, 야근, 여성비하와 폭력조차 기업발전을 위한 미덕으로 용납하기도 한다.

신입사원이 만나는 두 번째 문제는 그 회사를 이끄는 임원들이 여러 형태의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다. 상사가 교회에서는 ‘선한 일꾼’으로 있

다가 직장에서는 ‘거친 폭력배’로 바뀐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상사를 함께 비난하라고 유혹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못된 크리스천을 정죄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소리일 뿐이다. 타락한 사람들, 진리를 가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두시는지를 생각할 때 떠올리면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롬 1:28).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한다. 크리스천이라면 어느 누가 죄짓는 것을 좋아하고, 죄짓고도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모른 채도 어떤 어려운 환경, 무구멍이 포도청인 상태, 편향된 의식과 고집, 알게 모르게 술한 세월 저지른 죄가 굳은 땅이 되어서 무감각해져 있을 것이다. 내가 35년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임원, 부장, 과장 사이의 세력다툼과 줄서기 알력에 휩싸여 크리스천 임원에게 당했

던 모진 욕설과 인신 모독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탈모, 변비, 불면증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니었다. 믿지 않는 동료들의 어깨동무 덕분이었고, 무던히도 사먹이던 국밥과 자장면 덕분이다. 나에게 결재판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 지르던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저주와 욕설을 날리곤 했다. 그 험한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일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

헨리 나우웬은 〈겨울너머의 세계〉에서 자신이 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나의 죽음을 막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끝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웃들이며, 그들과 나누지 못했던 삶과 남을 술하게 정죄했던 행위에 에너지를 쏟아왔기 때문”이라며 “밀린 숙제가 정죄했던 사람들을 향한 못다한 사랑”이라고 고백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5천 명을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도록 기도하고,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직장에서 만나는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기를 권한다. 두 번째 할 일은 크리스천 흥내를 내는 상사나 직원을 만난다면 그대의 입을 다물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소리를 하면 상사에게 찍힐까 두려워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러나 그 순간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으나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일이 되어서 언젠가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평생 그 소굴에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 젊은 그대여, 용기를 내서 고통당하는 결과와 용기 내지 않고 겁쟁이로 지내는 차이를 헤아려 보라. 욕먹는 크리스천 상사와 기업을 위해 기도하고, 용기 내서 이야기했는데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곳은 그대가 머물 곳이 아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건강한 기업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 행위도 하나의 용기이기 때문이다.

*** ‘라떼는 말이야’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멘토님들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는 코너이다. 청년들이 고민이나 사연을 보내주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조언과 위로를 선물한다. 고민이나 사연 보내는 곳: joo@onnuri.org**



박순길 장로
(하늘대학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독립!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큰 금액을 지원받아 집을 정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부모님의 간섭이 심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신혼집을 구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듭니다. 아내는 저에게 자기주장을 하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곤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부부가 가장 크게 갈등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다. 특히 신혼집을 구하는 것과 예물과 예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비부부가 갈등한다. 물론 대부분 갈등을 극복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하지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부라면 결혼 이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의 큰 재정 지원은 갖 결혼한 부부에게 ‘간섭’의 형태로 영향을 끼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강한 부모일수록 자녀 부부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와 사고,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방

향으로 자녀를 이끌려고 하는 조정, 간섭, 압박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향성은 자녀가 미혼일 때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부이기는 하지만 통제 욕구가 강한 부모는 다 음과 같은 성향이 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실망감을 드러낸다. 그 실망감은 자녀가 부모와 다른 의견을 견지했을 때도 나타난다. 부모의 통제가 많을수록 자녀는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제 욕구가 많은 부모는 자녀의 독립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양극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큰 범위에서 ‘반항’과 ‘순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항은 적극적으로 부모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립하는 형태다. 순응은 부모의 요구에 간혀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는 성향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반항과 순응 모두 건강하고 기능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이 될 수 있다. 반항은 공격적인 형태로 단절 등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통제가 심했던 학생이 부모의 요구대로 힘들게 공부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고의로 망치는

것으로 보복하는 예도 있다.

통제적인 부모가 자수성가한 분들이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자녀는 반항보다 순응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인 여유를 가진 부모가 통제권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 경우도 있다. 부모의 어려움을 빌미 삼아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다. 부모의 어려운 점을 나타내면서 “내가 떠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부모의 여러 가지 형태의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심리적 통제의 측면에서 보면, 부모에게 받은 큰 금액의 도움은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통제 아래 두게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자율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고자 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는 결혼하면서 부모의 재정적인 도움이 있었다면 재정과 자신의 결혼 생활을 분리해서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재정적인 도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독립과 성장을 경험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고나서 간섭과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힘들겠지만 그

재정을 돌려드리고 두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는 신혼부부 중에는 집을 지원해주시고 통제하시는 부모님을 견디다 못해서 지원 받은 집을 팔아 재정을 돌려드리고, 두 사람이 대출을 받아 작은 집에서 전세로 시작한 부부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월세로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다. 경제적, 영적,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임을 알고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 감동이 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창 2:24).

자녀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부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떠나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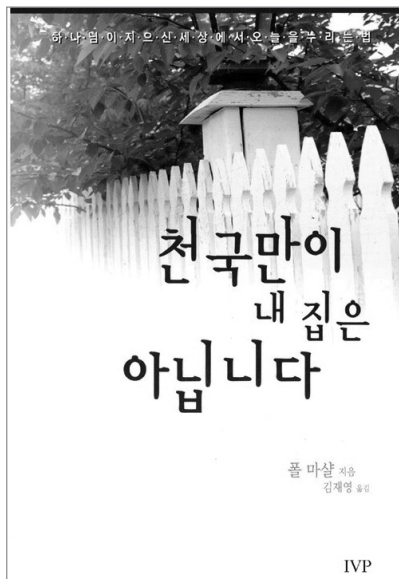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기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폴 마셜 저 | IVP | 12,000원

“천국은 나의 집이 아니다.”

이 책의 원제는 〈Heaven is Not My Home〉이다. 번역된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라는 제목보다 직설적이다. 천국 가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개념을 죽어야

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책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많은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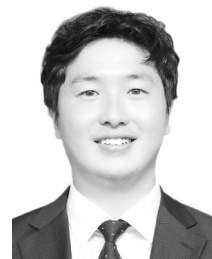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창조하셨

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지 못할 세상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속적이고 생각하는 배움, 일, 쉼, 놀이, 정치 등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드러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의 부제목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기(Living In the Now of God's Creation)’이다. 부제목과 제목을 함께 읽으면 저자가 왜 천국이 나의 집이 아니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저자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집임을 알려준다.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영역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청훈 목사
(평택 온누리교회)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영역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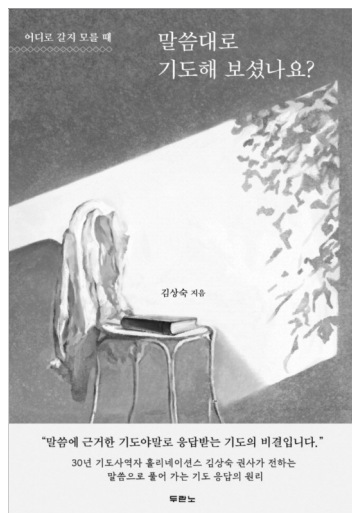
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 등 종교적 활동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형성하고, 보살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모

두란노 신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김상숙 저 | 두란노 | 10,000원

한 기도’를 꼽는다. 김상숙 권사는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비결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늘 궁정에 들어가는 정확한 번호 키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책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에는 김상숙 권사가 말씀대로 기도하며 응답 받은 은혜의 기록들이 가득하다. 기도 응답의 현장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들고 지쳐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면 당장 이 책을 펼쳐보자. 말씀에 숨겨진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는 언제 들어주시나요?”

우리는 오랜 시간 간구해온 기도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따져 묻곤 한다. 이쯤 되면 들어주실 법도 한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책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의 저자 김상숙 권사(홀리네이션스전교회)는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들 때, 어떻게 구할지 막막할 때 성경을 펼쳐보라고 조언한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자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지 물러로 불리는 김상숙 권사는 3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엄마로 살고 있다. 홀리네이션스전교회를 세워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돕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장학 사업, 쉼터 운영, 의료 선교 등을 하고 있다.

김상숙 권사는 30년 동안 단 한 번 부족함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길 수 있던 비결로 ‘성경에 근거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의 성도라도 남아 있다면...”



시베리아 순교자
김영학 목사

회하다 한 무리를 만났다. 그들은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기독교인 무리였는데 김영학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김영학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그들은 웃는 얼굴로 복음을 전했다. 김영학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을 만났다.

김영학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배와 전도에 열심이었다. 1907년 세례를 받은 김영학은 1908년 권서인이 되어서 본격적인 순회 전도를 시작했다. 1918년 목사 안수를 받고 양양교회를 섬기다가 양양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6

김영학은 만석꾼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즐기고 총명했는데 일본에 나라를 침탈당하는 현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술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김영학이 만취해서 장터를 배

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다음에는 대한독립에 국단 양양군단을 조직했다. 이 일이 발각되어서 김영학 목사는 또다시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1922년 출소한 김영학 목사는 시베리아 선교사로 자원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제를 피해 이주한 동포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그런데 일제를 피해 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칼날이 김영학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비에트 공화국의 기독교 탄압은 날로 거세졌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철수했다.

그런데 김영학 목사는 “여기에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남아 있다면 어떤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떠날 수 없다”면서 그곳에 남아 복음을 전했다. 1930년 약질분자로 체포된 김영학 목사는 10년 강제노역형을 선고 받는다. 그때 아내에게 “영학의 몸은 주께 바친 희생의 몸인즉 주의 인도를 기다릴 것뿐이라”는 편지를 남긴다.

끝까지 믿음과 성도를 지킨 김영학 목사는 시베리아 북동부 마가단에서 노역하다 1933년 순교했다.



코로나19, '사회선교본부'와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선교본부 '부채탈출 119'

부채탈출, 교회가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765조 원으로 불어났다. 가계부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65조 원 증가하면서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의 금융취약성지수(FVI)는 58.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7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거품에 청년들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신규 차주(借主) 중에서 2030세대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국가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 대출도 마다하지 않는 청년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곧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는 '영끌'과 빛 없는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빚투'의 결과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소비, 투자, 채무상황이 절실한 때이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는 '부채탈출 119'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재정관리와 채무상황을 돕고 있다. 지난해 진행

된 10기 부채탈출 119에서는 30여 명의 청년, 중장년 성도들이 재정관리와 채무상황을 상담받고 건강한 재정상태에 한 발짝 다가섰다. 사회선교본부 부채탈출 119에서 제공하는 전문 상담은 사회선교본부 전문가들과 가계부채 전문상담센터인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전담하고 있다.

A 성도는 오랜 생활고와 소득 불안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채탈출 119에 참가했다. 여러 번의 상담 끝에 안정을 찾았다. B 성도는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부채탈출 119를 찾았는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B 성도는 채무를 조정하고 결혼도 했다. C 성도는 주식, 비트코인 투자를 여러 번 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막대한 부채를 겪어냈다. 부채상황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했는데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부채탈출 119에 참가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와 가계부채 문제는 비단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로라하는 경력과 배경을 지닌 시니어들도 악성 채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회선교본부에서는 부채탈출 119 신청자 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업경험이 풍부한 D 성도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파산에 직면했다. 그런데 사업으로 재기하겠다는 무리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D 성도는 부채탈출 119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비로소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개인 파산을 진행했다. 악성 부채는 묵히면 묵힐수록 독으로 돌아온다. 하루빨리 부채를 해결하고 건강한 기독교 재정관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렬 총무(사회선교본부)는 "가계부 작성, 소득에 맞는 소비, 안정적인 투자 등으로 재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부채탈출 119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사회선교본부에서 오는 7월 25일까지 11기 부채탈출 119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로 고민하는 온누리교회 청장년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skyaiaman@naver.com)이나 팩스로(02-6455-2644)로 신청하면 된다. 부채탈출 119에서는 부채에 대한 원인파악과 해결방법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부부 프로그램'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젊은부부학교 참가자 간증

사랑은 섬김이다!

남편의 고백

온누리젊은부부학교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여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중국어예배 새신자반을 섬기면서 알게 된 정은영 집사님께 온누리젊은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했다.

외국인인 나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생활이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멘토가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고 버틸 수 있었다. 온누리젊은부부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 가정의 멘토로 세울 것이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야겨줘야 하는지, 어떻게 챙기고 잘해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온누리젊은부부학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이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한다.

/ 원수와의(중국어예배)



원수와의, 김미란 성도 부부가 온누리젊은부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

아내의 고백

나는 결혼 7년 차다. 그동안 이혼을 70번 정도 생각했던 것 같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혼합의서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놓기도 했다. 수많은 결혼 선배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은 순교다'라고 하는 말이 공감됐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적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도 이해됐다.

둘째가 태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예 기대를 말자고 생각했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상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온누리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하기 전에도 우리 부부는 싸웠고, 15일 동안 냉전 상태였다. 겨우 화해는 했는

데, 부부 사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둘 중 하나가 천국 가기 전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받자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미루던 찰나 남편이 온누리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온누리젊은부부학교가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 되게 하려고 주시는 선물이라고 느꼈다.

온누리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하면서 내려놓았던 기대들이 남편에 대한 감사로 바뀌었다. 남편에 대한 기대, 우리 부부에 대한 기대,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와 아름다운 꿈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온누리젊은부부학교 스테프들과 운영위원회가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아낌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섬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정과 부부의 참된 자제임을 배웠다. 아낌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다.

/ 김미란 성도(중국어예배)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길청년부 특별 온라인기도회 'ONE THING'

10일 동안, 오후 10시 각자 처소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을 돌아보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특별 온라인기도회 'ONE THING' (이하 특별 온라인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고,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라 야근을 하면 자정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오후 10시에 하는 기도회 참여도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특별 온라인기도회를 열겠다고 하시면서 참여를 독려하셨을 때 마음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졌다. 순장으로서 공동체에서 하는 특별기도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공동체에 부여하실 은혜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순에 내가 특별 온라인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제목을 냈다. 내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특별 온라인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온라인 기도회는 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 온라인 기도회에서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한

내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김하경 자매(길청년부)가 특별 온라인기도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이나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만큼이나 아니 더 깊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여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찬양으로 기도회를 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찬양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해진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열린 마음으로 감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었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아름다운 분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편한 환경에서 잘 갖춰진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말 감사한 환경인 동시에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역 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다. 이번 특별 온라인기도회 때

시지 중에서 우리 그룹이 아웃리치를 가게 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삶과 목회관이 기억에 남았다. 사역할 곳의 사정을 미리 기능해볼 수 있는 것도 감사했다. 편안한 환경을 뒤로하고 어려운 사역지로 옮기는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내시는 젊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ONE THING)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정말 뜻 깊었다.

사실 답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답이다.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 목소리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기도회 마지막에는 잠잠히 개인 기도제목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곁에 계셔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웠을 것 같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하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 김하경 자매(길청년부)



코로나19, '양육' 받으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언제야?” 혹은 “예수님과 첫사랑이 언제야?”와 같은 질문을 가장 싫어한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싱가포르로 유학을 갔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루셨다.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였고, 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법과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여러 방면에서 나를 많이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셨다. 싱가포르에서 보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다.

모태신앙의 축복이라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은 나에게 너무 당연했지만 설교 시작과 동시에 잠에 빠졌다. 머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교회는 갔다. 술 냄새가 나도 교회는 갔고, 클럽에서 밤을 새우고도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졸았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건가?’, ‘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이영아 자매(Point5공동체)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깨달았다.

내일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고민했다.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는 채로 대학교 입학을 위해 귀국했다. 대학교 2학년 때 동기들과 대화하면서 반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나의 모습과 마주했다. 그 래도 싱가포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양심이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라며 한 학기 동안 기도했다.

정말 갑갑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우연한 계기로 독일에 선교를 가게 되었다. 독일에서 보낸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치유

해 주셨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는 나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술과 클럽을 끊었다.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말씀으로 채웠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나는 섬기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도 나의 의와 어둠으로 그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항상 깨어있기를 원한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

/ 이영아 자매(Point5공동체)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심다!

‘2021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함께 ‘2021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을 한다.

2021 차세대 희망심기는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국가와 인종을 넘어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심는 사역이다.

2021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은 7월부터 10월까지 세 달 동안 온누리

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차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7월 초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저금통을 차세대에 배부하고, 10월 초에 수거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모은 후원금은 르완다 ECD센터 2곳, 말라위 ECD센터 2곳, 르완다 무하지 교회 주일학교 200명, 말라위 말랑가 교회 주일학교 100명, 부르키나파

소 국생 교회 주일학교 50명에게 긴급구호품(식량, 영양식품, 위생물품 등) 및 학용품 패키지(교복, 가방 등)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2021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에 참가한 차세대에게는 NGO 더멋진세상 후원증서를 준다.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

온라인커뮤니티, 7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 (이하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선보인다. 7월 9일(금) 오전 10시 유튜브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은 목회자와 성도가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말씀

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호영 목사, 이기훈 목사, 여성민 목사가 출연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전도분부에 문의하면 링크를 보내준다.

문의: 010-4219-3214

“갈 수 없다면 보내주세요!”

CGNTV 드림은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

여름 아웃리치를 갈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달랠 방법이 있다. CGNTV가 주관하는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다.

썸머 크리스마스는 지역교회, 국내외 선교사, 일본 무교회 등 선교지에 CGNTV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를 선물하는 캠페인이다. 8월 31일(화)까지 이어진다. 드림온플러스가 선교지에 CGNTV 셋탑박스를 전달하면 어디에서나 CGNTV를 시청할 수 있다.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02-796-2243)로 신청하면 된다. 캠페인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05904)로 약정한 셋톱박스 가격을 입금하면 된다. 한대당 15만 원(해외배송(일본제외)은 배송비 5만 원 추가)이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온누리신문에서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을 모집한다.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캠퍼스, 사역팀의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역 사진을 보내주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여름 아웃리치 간증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사진은 사역하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 공동체 단체 사진 등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 아웃리치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6959-0001

디지털 시대 선도하는 스마트복지관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2주년 기념행사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6월 24일(목) 개관 1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복지관’을 주제로 막 올랐다.

이날 ‘우리들의 스마트시대’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실시간 댓글 이벤

트도 했다. 어르신들이 AI로봇 ‘알파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액자에 담아 주는 코너도 있었다.

박준기 관장(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디지털 시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 모집

2021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을 모집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하려면 7월 15일(목)까지 어벤처스 네이버 공식블로그(blognaver.com/venture2016)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비영리법인도 참가할 수 있다. 팀의 핵심 멤버 한 명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문의: 010-4081-4682

어린이신문 작품 모집 이메일 접수

온누리신문에서 어린이신문 지면에 들어갈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A4용지 기준 2~3줄),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실리는 어린이신문 코너에 게재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내적치유학교 61기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 6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치유와 회복’, ‘역기능 가정의 회복’,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기쁨의 회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OCC공동체), 최용준 목사(강남B공동체), 오은규 목사(성동광진공동체)가 강의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3909-0195

‘온누리M 온라인 포럼’

다문화 선교 10대 영역 사역 발표

온누리M센터가 지난 6월 26일(토) ‘온누리M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온누리M 온라인 포럼에서는 노규석 목사 ‘New Normal 온누리M’, 이광수 선교사 ‘클릭 전도’, 최다니엘 선교사 ‘페이스북 전도’, 조의숙 선교사 ‘스리랑카 움직이는 교회’, 김효준 선교사 ‘청년 M-Tree’, 이경원 선교사 ‘스타트리 협동조합’ 등을 주제로 총 선교사 23명이 발표했다.

특히 이날 온누리M 온라인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선교를 위한 10대 영역 사역을 발표했다. 전도, 예배, 양육, 동원, 외국인 사역자 협력사역, 아웃리치, 이슬람권 선교, 스마트 선교, 교육 선교, 비즈니스&공공선교 등이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는 “쇄빙선이 얼음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 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어선교 교사 심화교육 60명 수료

한국어티칭스쿨 한국어 교사로 활동 예정

한국어선교학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선교 교사 심화교육’ 과정을 총 60명이 수료했다.

한국어선교 교사 심화교육에서는 국립국어원 사회통합교재를 활용했다. 줌(Zoom) 교육방법과 최일선 선교사로서의 5분 전도 마인드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유영이 성도(서초B공동체)는 “온라인으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서 뜻 깊었다”고 했고, 임한길 성도(양재공동체)

는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쁘다”고 고백했다.

한국어선교 교사 심화교육을 수료한 60명의 교사들은 한국어티칭스쿨(햇빛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포M센터, 남양주 M센터, 난민센터, 해외선교문화센터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예정이다.

문의: 010-8948-121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순장학교 수료 간증



/ 공승천 순장(김포공동체)

내게 일어난 이상한(?) 일

3년 전 순장으로 섬겨 달라는 전화를 받고 “순장은 섬기는 사람인데 몸이 불편한 제가 어떻게 하겠냐”며 거절했다. 그러나 장로님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겁하리만큼 도망치려 했던 모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겹쳐 보여 괴로웠다. 장로님과 타협하기로 했다. 딱 1년만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년마다 순 개편이 있는 상황에서 1년 만에 순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순 식구들을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2년이 차면 자연스럽게 순 개편을 하면서 순장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섬겼는데 코로나19가 순 개편을 막아버렸다.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3년째 순장 자리를 섬기고 있다. 순장의 역할 중 하나가 순 식구들을 세우는 일이고, 훈련받은 일꾼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에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많이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했다. 문제는 순장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순 식구들에게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것 역시 꺼려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성령수련회도, 순장학교에도 참가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순장학교 기간동안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매번 큐티를 해야 하고 순서대로 자신이 맡은 큐티를 공유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순장학교 기간 내내 큐티 본문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주어졌다. 비겁하리만큼 도망치려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즉시 식구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떠나 애굽을 향해 가는 큐티 본문이 아직도 내가 미디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순장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배 밑에 숨어 잠자는 요나 같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이상한 10주 과정이 금세 지나갔다. 순장학교가 순장으로 섬기는 모든 노하우를 전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온누리교회가 꾸는 꿈을 같이 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순장학교가 바로 그 꿈을 꾸게 하고, 사역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이정표가 되어줘서 감사하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 있는 것은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유아세례 간증



/ 김자연 성도(영등포구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하던 일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자산을 다 잃었고 빚까지 지는 상황에 놓였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남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을 위로하지 못하고 많이 싸우고 상처를 주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두려웠다.

폭풍 같은 신혼생활이 어느덧 1년이 지나갔다. 그 사이 남편과 나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기보다 연민의 감정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했다.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지 말고 공동체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남편과 함께 새신자 과정을 등록하고,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하고, 순 배정을 받았다. 남편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이 기적적으로 잘 되었다. 빛을 갖고 자산도 회복하게 되었다.

차츰 안정되면서 기도로 자녀계획을 준비했다. 첫 아이를 임신했다. 성경통독반 강의를 들으면서 태교하고 아이를 낳았다. 많은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안 하던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혼 초에 많이 싸워서 그런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컸다. 서로 도우면서 싸우지 않고 첫 아이를 키웠다. 둘째도 빨리 가지게 되었다. 연년생인 첫째와 둘째가 함께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행복과 기쁨을 느끼곤 한다. 가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임을 다시금 상기하곤 한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키울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믿음의 선배이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극복해 나가기 도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박사무엘, 예녹, 종인&종하(불가리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과 2월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자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전면적인 이동제한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한 현지 리더십 회의에서 한 리더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현장 예배는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과 믿음조차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리더들의 동의하에 온라인과 병행해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사람들이 모임과 예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언제 다시 봉쇄조치가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주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으로 인해 예배와 모임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현장 예배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함께 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예배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간증과 말씀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은혜

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한 교회 그룹과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김밥만들기를 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의 영역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현실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다음세대들이 말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현지 리더들에게 주께서 다시 비전과 믿음, 성령의 일치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 소식을 전합니다. 한 달 반 정도 한국에 머물 계획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귀국합니다. 아내는 그동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건강검진과 급한 행정 일을 보고, 지친 심신을 잘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계속 진행되는 현장 예배와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족의 모든 여정과 안전, 한국에서의 유익한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마음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가정과 삶에 새 힘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참가기



/ 김진희 성도(전주대학교회), 구선례 어르신

어머니와 함께 ‘달려라! 풍당’

CGNTV로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을 소개하시면서 다음세대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참가했다.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어머니가 교육열이 있어서 나를 비롯한 우리 자매들을 열심히 가르치셨다. 그 덕에 대학교수도 나왔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싶어서 전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어머니가 최근 몇 년 새 편찮으셨다. 대학병원을 2년 동안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시편 71편 9절, 18절,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고 간병인을 쓰지 않고 내가 어머니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보살펴 드리고 있다. 어머니의 재활치료를 위해서 전동자전거를 샀는데 이게 참 힘든 일이다. 지치고 재미없고 반복적인 재활 운동에 서로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다. 차세대와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

고, 건강상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어머니께도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았다. 딸들 교육에 힘썼던 어머니가 다음세대를 위한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에 빠질 수 없었다.

모녀가 함께 참가했더니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동기 부여가 되고, 집에만 있고 사람들과 왕래가 없었던 어머니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 어머니의 건강까지 챙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잠깐이지만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의미 있었다.

예전에 <예수님이 좋아요>를 미자립교회에 후원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다. 도시에 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좋아요>가 미자립교회에서는 정말 귀한 책이었다. CGNTV 기독 OTT ‘풍당’을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을 계기로 좋은 차세대 콘텐츠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기독 OTT ‘풍당’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독 OTT ‘풍당’에 율동 같은 동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더 많이졌으면 좋겠다.

장로칼럼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재광 장로
(온누리교회
대전캠퍼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반도 복음 통일’을 큰 소망으로 여기는 탈북민 선교

에서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향후 고향에서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 탈북민을 가슴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선교의 용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기도

와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 온누리교회 한누리공동체는 2012년 하나공동체 사역팀으로 시작했다. 대외적으로 하나원(안성, 화천) 방문사역, 대전지역 하나센터 연계사역(입주 청소, 수료식, 정착 도우미 등), 탈북민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우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늘해랑 공부방’ 연계사역 등을 이어오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예배와 아웃리치, 중보기도, 북한선교학교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한누리공동체는 대전에 정착하기 시작한 탈북민을 위한 많은 섬김의 사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그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게 쉽지 않았다. 2019년에는 새롭게 팀(담당사역자: 정현석 목사, 팀장: 안수진 집사, 총무: 한재승 선교사)을 꾸렸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역

행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대면 예배와 계획한 일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나님께서 탈북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사역팀에게 부어주셨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탈북민들이 더 큰 어려운 상황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탈북민 지체 한 분 한 분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그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탈북민들을 위한 마스크, 소독제, 반찬과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담당사역자와 함께 두 분 또는 세분이 먼 곳까지 가서 심방을 하고, 나눔과 위로를 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Zoom을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전, 세종, 신탄진, 예산, 전주, 부산, 서울, 경기 등뿐만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셨던 분들까지 시간에 맞춰 예배에 참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같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마음,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이라 생각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올해 한누리공동체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보다 풍성한 예배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권사칼럼

나의 진정한 생일



최영미 권사
(온누리교회
강동캠퍼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잊고 살아 가는 것들이 있다. 잊으려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레 세지 않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그렇다. 누군가 내게 몇 살이냐고 물으면 ‘내가 몇 살이지?’라는 생각이 스친다. 곧이어 알아차린 내 나이를

생소해 하며 대답하게 된다. 어느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50대 후반이라고 얼버무리는 일도 있다. 생일은 더욱 그렇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일을 잊고 살아간다.

젊었을 때는 생일이 항상 설레는 날이었다. 오늘은 무슨 선물을 받을지, 누가 내게 축하인사를 건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결혼해서도 생일은 특별한 기념일이었다. 항상 바쁜 남편과 멀리 있는 아이들이 혹시 내 생일을 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보게기도 했다. 그런데 항상 설레고 기대되었던 생일이 요즘은 점점 번거롭게만 느껴진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된다. 그때마다 고인의 삶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그분이 생전에 무엇을 하셨던 분이고, 어떤 것을 성취하셨고, 자녀는 누구인지 등등의 세상의 자랑은 점차 희미해지고 고인이 천국에서 맞이하실 그 첫날을 생각하게 된다. 고인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고 계실지 모습을 그려본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마중 나와 주실 그 장면을 떠올려본다. 천국 문에 들어가실 고인의 얼굴을 그리면서 장례예배의 은혜에 잠긴다.

장례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면 나의 죽음

을 한번 생각해본다. 죽음 이후 맞이하는 천국에서의 첫 날을 그려본다. 물론 천국에서의 첫 날이 어떨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늘에서 맞이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만 할 뿐이다. 그렇게 천국에 도착하는 날을 떠올리면 두렵기도 하고, 행복해서 미소가 저절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다 문득 ‘죽어야 사는 그 복음의 비밀이 풀리는 날이 진정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친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야말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진정한 나의 생일이 되지 않을까?

며칠 전 어느 사역팀 총무 집사님께서 내 생일을 물어보셨다. 생일을 챙겨주시겠다고 날 짜를 물어오시는데 내 생일이 언제인가 생각이 스치다가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이 대답이 튀어나왔다.

“제 생일이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이요!”

내게 더이상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생일 축하도, 선물도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서 누릴 호사들을 상상해본다. 오직 행복만 가득한 그 동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뛰놀 모습이 기대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영이와 준우가 먼 훗날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헤어지는 그날에 잠깐의 이별로 너무 슬퍼하지 않길 바란다. 엄마가 떠나는 날을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엄마의 진정한 생일’로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기도한다.

다시 태어날 그날! 본향으로 가는 그날! 내 진정한 생일을 위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 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안식일’을 어릴 적에는 ‘주일’(主日)과 혼용해서 이해하고 사용했다. 안식일이 주일이었고, 주일이 일요일이었으며, 일요일이 안식일이었다. 커서 ‘안식일’은 7일을 1주일로 지키는 달력에서 토요일이 됨을 알게 되었다. 물론 유대 방식으

로 따지자면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먼저 다섯 가지를 말해준다(출 20:8~11, 신 5:12~15). 첫째, 노동(일)을 멈춤, 둘째 쉬는 누림, 셋째, 창조주를 기억함, 넷째, 구원자를 기억함, 다섯째, 하늘의 복을 누리

며 나눔이다.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새겨야 할 안식일의 규례이다. 성경은 또 두 가지 안식을 이어서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출 31:13).

여섯째, 행복한 시간을 누림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하는 징표가 되어서 일주일을 보내고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과 사랑을 표현함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이 ‘기쁘게 누리는 날’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강박적인 율법이 되어서 기쁘지 않은 헌신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모습과 잘못된 계사관이 혼합되어 기독교 이단으로 여겨지는 ‘제칠일안식일예

수재림교회’가 등장했다. 19세기 중반 미국 미시간주에서 부흥사로 활동했던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1844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주장을 두 차례나 했으나 모두 불발했다. 그러자 그의 추종자 중 엘렌 G. H 화이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으며 구약의 율법, 특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성경 해석 열심과 율법을 지켜보려는 노력은 가상(嘉賞)하다 하겠으나 그들에게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 힘들게 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안식교에서도 이단으로 구분되어 쫓겨난 단체가 있으니 ‘하나님 어머니’가 ‘장길자’라는 여인이라고 믿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뿐 아니라 유월절까지 지킨다고 어마어마하게 자랑하며 마음 약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

나님도, 구원관도, 성경관도, 기독교도 모두 망가져 버린 사이비이다. 안식일을 바르게 알고 누리며 대대로 지켜야 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던 미적 거림이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었다. ‘억지 행복’만 존재하고 ‘진정한 행복함’이 없는 두렵게만 하는 안식일 주장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가 영원한 언약을 밝히 말씀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출 31:16).

일곱 번째, 안식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대대로 영원히 누릴 것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안식을 기쁨으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진정한 안식의 일곱 가지 의미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주의 일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지진 빈도와 그 이전 200년 동안 일어난 지진 빈도를 한번 조화해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늘과 땅은 하박국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에 대한 찬송을 자아내는 만물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전염병과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는 자연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연동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을 낮추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문명을 보면 화산, 지진, 해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증거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작할 때 수많은 세월 동안 축적된 데 이터라고 설명합니다. 지층을 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계곡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모든 과학자들이 엄청난 대격변의 증거라고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 심판의 증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한쪽으로 밀렸던 물이 요동치고 그 땅을 휩쓸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랜드 캐니언에 있던 큰 돌들이 라스베이거스까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인간을 심판하신 증거입니다.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지시적인 뜻이 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어진 삶에 책임을, 지구에 대한 책임을,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난과 심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난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죄와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징조로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생태계 변화로 산과 바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연과 함께 인간의 불순종을 연동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함께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변화될 때 모든 만물이 함께 구속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밭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13절).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밭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심으로 모든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

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고, 모든 악한 자의 우두머리를 부수시고, 모든 악을 벌거벗기시고, 모든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16절).

역사에 대한 진실을 알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깨달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올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은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재앙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앙보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박국은 재앙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역사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심판을 통과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찾아오게 될 최후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만 갖지 말고 수많은 영혼이 믿음의 은혜와 축복, 진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설만한교회에서 온 편지



정수덕 전도사
(설만한교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온누리신문 기사를 통해 인사드린 경기도 구리시 설만한교회 정수덕 전도사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편을 잡습니다.

저희 설만한교회는 온누리신문에 소개된 대로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여유 공간을 빌려 사용하던 터라 교회 간판도, 십자가도 달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암투병, 교회 재정 악화 등 여러 어려움에 쫓기고 쫓겨 오게 된 곳이지만 저희에게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죽음과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존폐까지 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온누리교회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렙청년부에서 저희 교회 차세대 사역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형, 누나들이 또 언제 오는지 기다리곤 합니다.

갈렙청년부와 의 인연으로 온누리신문에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희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을 텐데 염치없이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지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온누리신문 보도가 나가고 기적 같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교회계좌로 300만 원, 100만 원, 40만 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각각의 모양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50여 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

니다. 문자메시지와 함께 헌금해주신 성도님들께는 짧게나마 답을 드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마저도 못한 성도님들이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설만한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는 “전도사님 어떻게 이런 헌금이 들어옵니까? 이 돈 저희가 진짜 받아도 되는 걸까요?”라고 몇 번이고 물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집사님 한 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연합된 지체 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글을 마치고 싶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생겨 염치없이 몇 자 보탭니다. 지난 6월 19일 아파트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 자리를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여러 번 교회 사정을 설명하면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

다. 8월 중에 자리를 빼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헌금과 교회에 남아 있는 재정으로 새로운 보급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웬지 모를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동일한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를 위한 교회’라는 비전을 안고 새로운 보급자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처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법) 논평서

평등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여 소수의 특권을 위하여 다수의 기본권(양심의 표현)을 역차별한다. 평등법은 동성애,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사회와 윤리를 해체한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그동안 1년 동안 기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해온 반대 요청을 물리치고 동성애 및 동성혼을 허용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실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은 8년 만이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179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요건을 채운 가운데 14년만에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자 하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 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종전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적용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비롯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21가지를 제시했다.

발의된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

서구적인 인권이념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평등법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모든 국민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악법인 평등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살림나비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평등법을 즉시 폐기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이 법안의 문제점은 차별금지 조항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에 있다.

이 법안에서 명기하고 있는 차별금지조항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 같이 사회구성원이 윤리와 도덕에 입각하여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점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역차별을 낳게 되는 것이다.

2. 우리 헌법이 이미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니,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조항은 불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헌법은 평등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이다. 이미 우리 헌법은 차별(성별, 직업, 나이, 출신, 학력, 국적, 장애 등)을 금지하고 평등을 중시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16일에 이상민을 포함하여 24인이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모호하게 거론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혀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를 위한 평등법은 평등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형사고발조항이 없다고하나 징벌적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 강연, 캠페인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평등법은 확실히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한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형사고발조항이 없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활동은 종교의 자유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안으로 제정되면 실제 적용의 경우는 입안의 의도와는 다르게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없는 대신 징벌적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있게 되어 목회자의 설교는 위축되고 시민단체의 반동성애 캠페인, 교수들의 동성애 반대 강의는 크게 위축을 받기에 이른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동성애 및 성별 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4. 실증법은 무차별 입법주의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맞추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

이 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어떤 사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을 뺀다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민 의원은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도 차별 조항에서 넣어야 한다는 무차별적 평등주의 사고에 빠져 있다.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동성끼리의 성적 교섭은 자연질서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실증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연법에 어긋날 때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것이다. 양심에 입각한 독재 투쟁이나 대북전단금지법 등은 실증법에 어긋나나 이러한 행위가 윤리와 도덕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사회에서는 반체제인사들이 양심수로 간주되고 저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5. 이 법은 욕아카르타 원칙처럼 UN 인권선언문을 교묘하게 뒤집고 독소조항인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뒷부분에 교묘하게 삽입한 악법이다.

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NGO 단체가 주장하는 욕아카르타 원칙을 마치 UN 인권선언문처럼 오해하게 하여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해야 하는 것처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욕아카르타 원칙은 UN 인권선언문을 교묘하게 뒤집고 독소조항인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뒷부분에 교묘하게 삽입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과 윤리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가진 악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된 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욕아카르타 원칙을 실현하려는 평등법은 폐기되어 마땅한 악법이다.

6. 평등법은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윤리와 사회를 해체하게 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평등법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제3의 성과 젠더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발의된 평등법은 주로 ‘성별’이란 단어가 28회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을 중시할 때, 사회적 성과 동성애를 지지하고 젠더 정체성을 교묘하게 숨기고 전체 국민의 도덕과 윤리의 근본을 뒤흔들고 소수자의 ‘사회적 성’ 개념을 두둔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려는 발상이다. 더구나 평등법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란 윤리적 조항을 삽입한 것은 양성 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되며,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윤리와 사회를 해체하게 할 것이다.

7. 이 법안은 기독교 선교 및 목사 설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게 될 악법이다.

평등법의 행태는 이미 우리 헌법에 있는 차별금지법(성별, 직업, 나이, 출신, 학력, 국적, 장애 등)에 독소조항인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이란 독소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선교 및 목사 설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비장애인에게 역차별을 조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법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본적인 권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그러므로 이번 발의된 평등법은 동성애 젠더 독재법이고, 성해체 젠더 악법이고, 동성애 반인권법이고, 양성파괴 가정해체법이고, 반신적 동성애법이고, 반기독교 종교탄압법이고, 반자유민주 인권독재법이다.

8.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한 불평등한 법안을 발의, 졸속 입법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에 앞서서 사회적 협치를 먼저 이루라.

왜 국회의원 24명은 대다수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여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민이 신음하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이 시기에 평등법을 발의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결국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와 소속단체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 방식으로 요청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 무시하고 이와 같은 심각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각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성소수자의 진정한 행복 추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저들이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서 진정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차별금지 사유에 관하여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성소수자에 관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들로 특별신분을 누리게 하고 이들에 대한 양심적인 비판자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물리게 함으로써 역차별을 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과 차별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하도록 하여 이들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10. 한국 교회는 평등으로 포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신앙의 결단으로 기도하여 싸워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년 8월 24일~1833년 7월 29일)는 18세기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끈 정치인이자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델이었다. 교회사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로버트 레이크스(주일학교 창설자)와 존 벤(John Venn)과 더불어 18세기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노예제도 반대운동의 기수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추앙받는다.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단합하여 동성애 법안을 통과를 막아내어야 한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동성애 법안 통과란 전 세계적인 문화적 현상이기에 어쩔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일부 그룹의 비겁함과 타협의 시대적 중독증에서 깨어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미래 세대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지킨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살림을 꿈꾸는 나비행동



나의 드림리스트

오심쇼

하나님께 드리는 유쾌한 중년의 따뜻한 드림리스트!
개그우먼 조혜련과 함께 배우고 나눕니다.

 유튜브 CGNTV 검색

☒ 요리하기

☒ 성경 가르치기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 사모하며 읽어나가겠습니다.
- 썸*인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
제대로 쓰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감동입니다.
- 큰*무


☒ 복화술로 간증하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업로드
MC 개그우먼 조혜련


☐ 상담해주기

☐ 찬양으로 버스킹하기
